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5. 8.(금) 15:00

## “해외에 살아도 국민연금 상담 쉽게”

### 재외동포 국민연금 상담 문턱 낮춘다

- 재외동포청-국민연금공단, 재외동포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도 국민연금 관련 상담과 안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5월 8일(금) 국민연금공단(이사장 김성주)과 재외동포의 국민연금 상담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  - 협약식은 이날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열렸다.
-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·병역·국민연금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,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화해왔다.
  - 그동안 많은 재외동포들은 해외 이주 과정에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거나 해외 거주국 연금제도를 잘 알지 못해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.
  - 특히 한국과 체류국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,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.
-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가 연금 정보를 더 쉽게 안내받고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.
  - 주요 협력 내용은 ▲재외동포 권익 및 노후소득 보장 관련된 신규 사업 발굴 및 상호 협조 ▲재외동포 권익과 노후소득 보장 목적의 정보 취득과 상호 제공에 대한 협력 ▲재외동포 권익 보호 사업에 대한 양 기관의

온라인,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협력 ▲재외동포 인증제도 활성화  
 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 대국민 정보시스템 이용 협조 ▲사회보장협정  
 관련 심층 상담 제공 등이다.

- 김성주 이사장은 “이번 협약이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노후 삶을 끝까지  
 살피고 있다는 신뢰를 공고히 하여 국격을 높이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양  
 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김경협 청장은 “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 
 협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”며 “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 
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 
 다”고 밝혔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	책임자	센터장	김연식	02-6399-7150
		담당자	전문관	김남주	02-6399-7158

